

# 癌공포를 면하려면

김건열 / 서울의대 내과 교수 · 서울대보건의료소장

우리나라의 3대사망원인의 하나가 인체장기에 발생하는 각종 암성(癌性)질환이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에 있다. 그것은 아직도 현대과학이 암(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모르고 있는데다 암의 원인의 60~70%를 차지하고있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암은 당분간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으로 앞으로의 의과학이 풀어야 할 최우선의 숙제가 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매일매일의 진료속에 폐암 등 각종 암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후에 대해서 환자가족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언젠고 느끼는 것은 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고 암 공포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학상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하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쉬운 일부터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자에서 발생하는 3대암은 위암, 간암, 폐암이며 여자에서는 유방암, 자궁암, 위장암 등 잘생기는 암의 종류가 있다.

2. 암의 발생은 몇달, 몇년의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년 몇십년의 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므로 반드시 환자의 습관(식성, 생활, 기호품 등)이 관계하고 있어 사전예방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3. 암 발생에는 위험년령군과 위험군이 있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증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4. 암의 위험년령군은 40세 이상이며 「폐암」위험군은 흡연자, 만성궤담배출자 및 혈담을 경험한 사람이며, 「위암」위험군은 30대 이상 만성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이 체중감소가 있을 때이며, 폐암에 관한 한 도시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이 깊게 관여하고 있고 위암에 관한 한 우리가 먹고있는 음식, 식수오염이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암」에 관해서는 만성간염, 음주 등에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각종 화학물질(방부제 등)이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암 위험년령군에 있는 사람은 암 위험인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생활습관에다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며,

6. 암의 「조기발견」에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암의 조기발견」은 현재의 의과학

의 지식으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적은 구슬을 찾는 것에 비유할만큼」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우리지역사회에서 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각 개인의 생활습관, 식사습관을 개선 해야되며 좀더 내실있는 암 검진사업이 꾸준히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9. 암 정복을 위한 현재의 의과학지식은 「유치원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속 투자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를위한 민간투자, 정부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0. 미국암협회(癌協會)가 홍보하는 「여덟가지 암(癌) 위험신호」는 다음과 같다.

- 1) 피부나 위장관에 생겨 낫지않는 궤양성질환(潰瘍性疾患).
- 2) 덩어리(腫瘤性)가 만져지는 병이 생길때 (유방이나 피부, 입과선 등).

- 3) 출혈이나 혈성분비물(血性分泌物)을 보이는 병소.
- 4) 변색하는 모반(母斑)이나 사마귀(疣腫).
- 5) 오래 계속되는 소화불량증과 체중감소.
- 6) 오래 계속되는 기침과 목소리가 쉬는 것.
- 7) 대소변의 습관이 달라지고 대변색의 변조가 보일때.
- 8) 원인이 확실치 않은 체중감소와 발열상태가 오랜기간 있을때.

따라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해당전문의를 찾아 X-선검사(필요에 따라 CT검사 등 특수검사), 혈액검사(암표식자 등) 및 내시경(內視鏡)검사를 받아 암성질환의 조기발견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상의 여러가지 검사에도 아주 조기암성(早期癌性)질환은 전부 안타나날 수도 있으므로 현대과학을 과신하지 말고 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계속 노력해야 함이 제일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리적목적으로 전국각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합검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책임하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 위내시경 없는 종합검진은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위암을 놓치는 검진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영리목적으로 검진사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료과신평조속에 의료기술이 내병을 찾아주겠지하는 기대를 버리고 내가 내몸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80세를 바라보는 긴 설계끝에 잘 가꾸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